

“나비도 사람과 더불어 살아요”

배추흰나비, 호랑나비가 노란빛 유채꽃밭 위를 훨훨 날아다닌다. 병아리들은 무리지어 어미닭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 번 쳐다보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 우리들은 연못가를 맴돌다 일없다는 듯이 물 위를 동동 떠다닌다. 토끼 한 마리는 넓은 유채꽃밭과 배추밭 사이를 오가며 연한 풀들을 뜯어먹기에 정신이 없다. 서울 도심에서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만나게 된다면 그날은 고향이라도 온 듯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 시골의 목가적인 풍경을 서울 어린이회관 야외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가에 그곳을 찾았다.

“2009 서울 나비곤충축제”가 열리고 있는 능동 어린이 회관의 야외광장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생태축제 마당이었다. 살아있는 나비와 곤충을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나비생태관’과 ‘곤충생태관’을 꾸며두었다. 그리고 행사장 주변을 유채꽃과 보리밭으로 조성했으며, 100m도 넘는 호박 터널을 조성해 걸을 수 있게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주)레드천삼커뮤니케이션 서천일 대표는 “함평 군에서 나비,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오리, 유채꽃, 호박, 보리 등을 비롯해 기술적인 노하우와 콘텐츠까지도 지원해주었다”면서 이곳을 가리켜 “축소된 함평 나비 축제”라고 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나비생태관’에 들어가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와 닿는다. 나비는 섭식 30도가 넘어야 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덥게 해놓을 수밖에 없다. 나비를 쫓아다니는 아이, 자못 영경 위 꽃에 사뿐히 내려앉은 나비를 지켜보는 아이, 나비의 애벌레를 관찰하는 아이 등 그곳에는 아이들의 환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서천일 대표는 ‘나비생태관’의 활기찬 풍경을 보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컴퓨터 앞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른들이 학교와 학원을 오가게 하고, 인공의 숲속에 가두어버렸으니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나”고 한다.

“함평 나비축제를 서울 도심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나비 축제를 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생태관 및 나비 곤충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벗어나 멀리 지방까지 가야 접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과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서울 나비곤충축제’는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나비축제’로 유명한 함평이 고향인 서천일 대표는 어릴 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느꼈던 즐거움과 행복감을 도심의 아이들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이다.

“여러 지방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생태축제는 어른 중심의 축제이기에 막상 아이들이 가도 공부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곤충생태관’에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 등의 애벌레를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그리고 다양한 농작물의 재배과정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관’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직접 만져보고 싶어 해요.”



‘2009 서울 나비곤충축제’를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에서 열고 있는 서천일 대표.

동심과 자연의 만남 서울서 열리는 ‘미니’ 함평 나비 축제 개최

“불교는 자연의 종교, 짧은 시간이라도 자연 접하는 계기 되기를...”

서천일 대표는 아이들의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네 다섯 개의 관을 완전 개방하여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나비생태관’에는 살아있는 나비가 날아다니고,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나비의 일대기를 직접 관찰하면서 나비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해줬다. 또 ‘곤충생태관’에 들어가면 야생초 사이로 배추흰나비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도 곤충의 일대기를 공부할 수 있으며, 수서곤충과 다양한 풀벌레들의 생생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부처님은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열반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연의 종교라 할 수 있어요. 인간 또한 자연의 일부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도시 사람들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다보니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자연을 접하고 나비와 곤충들도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 서울 나비곤충축제”는 아이들을 위한 축제이기도 하지만,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나비 곤충 모형 만들기’ ‘황토천연염색’ ‘보리피리 만들어 볼거리’ ‘달걀꾸러미 만들기’ ‘뿔돌 돌리기’ ‘방아 찧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둔 터이다.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동심의 시간이 될 것이다.

서천일 대표는 어릴 때부터 불공드리러 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집집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교사상에 젖어들 수 있었다. 이런 인연으로 종교학과 때는 ‘불교학생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불교를 통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의해서 살리고 있는 것이며, 인드라마의 그물처럼 서로가 연결돼 있음을 배웠다”는 서 대표는 “자연과 인간 또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연 앞에서 오만을 버리고 겸허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 것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잠시 동안 맡아있을 뿐입니다. ‘나’라는 생명의 자체가 유한한데, 내 것이 욕심 부리는 것이 어리석음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격정과 티가 없이 편안한 것, 이것을 더없는 행복”이라 했는데, 서천일 대표는 날마다 자연과 더불어 ‘더없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나 싶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분지 논설위원



“불교명량출품 기념대축제”

산상차

야생수제 구중구포 병입차

http://www.ggzen.or.kr

NAVER 산상차 검색

“첫서리 맞은 병입차!!! 녹차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당뇨·고혈압·혈액순환

병입차 만드는 과정

공강선원농원 병입 채취 병입 건조

병입차의 효능

- 당뇨, 고혈압에 도움
2. 혈액순환으로 동맥경화에 도움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중풍, 치매
4. 변비, 이뇨작용, 손발이차고 저린데
5. 잠 잘 때 식은땀, 몸의 붓기 제거

인터넷 체험 후기

- 당뇨에 병입차가 최고
- 많은 차를 마셨지만 맛과 향에 탄복한 것은 처음
- 깔끔하고 깊고 그윽한 향에 다른 차를 못마땅하게 할 정도
- 속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뇨작용에 좋음
-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첫서리 맞은 병입차를 마시며 몸이 가벼워지고 나쁜기운이 해소
- 부산 중구 안미선
- 대구 북구 석현도
- 울산 북구 이용희
- 경북 안동 김경일
- 경기도 용인 박영철

2009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문 베스트 브랜드 수상

제품 설명

- 초심(初心) - 맛과 향이 부드러워 누구든지 편안하게 차 맛을 즐길 수 있는 차
- 발심(發心) - 첫서리를 맞은 병입으로 만들어서 깊은 맛이 있으며 효능이 있어 몸에 매우 좋은 차

인론에서 맛과 효능 격찬!!!

- 뉴스포커스 소개 / 더데일리 뉴스 소개 / 시사매거진 소개
- 현대불교신문 “호수스님의 병입차 이야기” 연재 / 뉴스메이커 대상수상
- 2009년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문 베스트브랜드 수상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할인행사

초심(구중구포 병입차) 50,000원 → 35,000원 2통이상 주문시

발심(첫서리맞은병입차) 70,000원 → 50,000원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병입차의 수익금은 전액 금강선원 대웅전불사에 쓰여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참선마슬 금강선원**

TEL 055)931-9590 / 농협 843162-55-000050 (예금주:금강선원)